

칼럼



정기연 전 영암 신북초등학교 교장

‘하게 하는 교육’으로 실력을 기르자

2020년도는 코로나 19 감염 때문에 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여 대면 수업(Off-line)을 하는 날이 줄어들었으며 원격수업으로 비대면 온라인(On-line)수업이 전개되었다. 그에 따른 학습자료가 개발되어 공급되었으며 방법지도도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교사와 대면 수업 없이 학생 혼자 집에서 공부하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한 자율 학습이 전개되었다. 자율 학습은 학생이 공부를 자율적으로 하게 하는 자극과 방법지도가 있어야 한다.

2021년도에도 코로나 19가 물러나지 않고 있어서 겨울 방학이 끝나고 새 학년에도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리라 본다.

교육은 먼저 경험한 부모나 교사가 자녀와 학생에게 그 경험을 재구성(再構成)하도록 하는 과정인데 교육 방법은 경험한 것을 ‘가르치는 교육’과 경험하도록 방법을 알려주고 주체적으로 경험하도록 도와주는 ‘하게 하는 교육’이 있다.

가르치는 교육은 교사가 경험하고 아는 것만이 전달되지만 ‘하게 하는 교육’은 학생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찾아서 경험하면서 터득하는 학습이며 능력에 따라 다양한 경험을 하며 공부하다가 의문이 생기는 것을 질문하며 교사는 질문에 응해야 하고 공부를 많이 한 학생 일수록 질문이 많다.

고등고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가르치는 교육보다는 선배로부터 공부하는 방법을 익히고 도서관이나 절간으로 들어가 자율 학습 방법으로 공부하여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다. ‘하게 하는 교육’은 자율 학습으로 창의력을 발휘해 질문이 생기게 되며 그 질문을 해결해가면서 학습 진도가 나간다. 비대면 학교 교육은 교사의 학습 안내와 방법지도가 따르고 있어 방법에 숙달되면 대면학습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해마다 각급 학교에선 학교 교육 계획을 세우며 학생들이 1년간 경험할 경험의 총체인 학교 교육과정 을 짜는데 그 교육과정에 빠진 것

은 학생들이 경험할 수 없다. 초등 교육과정은 2층 구조로 되어있으며 교과과정과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되어있는데, 광주시교육청의 2021년도 비교과학습과정에는 23개 항목이 있으며 필수 항목(17)과 권장 항목(6)이 있다. 학교는 지역 실정과 학부모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내용을 교육과정에 편성하여 운영하게 된다.

그런데 해마다 거론되는 한자 교육이 창의적 체험활동의 권장사업으로 되어있으며, 3학년부터 6학년 까지 하게 되어있는데 올해도 학교 교육과정 편성에서 한자 교육이 외면된 학교는 학생들이 한자 공부에 대한 지원을 못 받게 될 것이다. 학

교 교육과정에 편성되면 교사의 지도가 따르고 그에 따른 학습자료가 공급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초등학교의 학부모들은 올해 초등학교에서 한자 교육을 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지금까지 성인들이 한자를 익힌 것은 학교에서 한자 교육을 등한시 하지만, 혼자 하는 학습 방법으로 교재를 선택해서 익혔다. 비대면 하게 하는 자율 학습에서 한자 교육은, 시중에 있는 자율 학습으로 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자극만 주면 혼자서도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사적으로 교육 방법을 검토해보면 최대 공약수는 계획세우기 - 실행하기 - 평가하기로 되어있다. 어느 한 항목을 등한시할 수 없다. 따라서 코로나 19 때문에 학교 교육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이 3대 교육 방법의 원칙만 반드시 지켜서 ‘하게 하는 비대면 자율학습’으로 학생들의 실력을 높여야 한다.

광주시교육청은 혁신학교를 67개교, 전라남도교육청은 139개교를 만들어 연간 다른 학교와 다른 교육비(평균 2,000만 원이상)를 지원하며 자랑하고 있다. 과연 혁신학

교가 교육비 예산지원을 많이 받은 만큼, 인성 지도 선도학교, 학습지도 방법 선도학교, 학생 학력 향상 선도학교로 두각을 나타내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하다면 제도수정을 하던지 혁신학교 간판을 내려야 한다.

교육의 선진화는 가르치는 교육이 아닌 ‘하게 하는 주체적 창의학습’이다. 그렇게 하려면 학생에게 적절한 창의학습 자료를 제공하고 활용 방법 지도와 자극제로써 학습 목표에 따른 평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광주시교육청이 ‘질문 있는 교실, 행복한 학교’를 만들려면 창의적 자율 학습을 할 수 있는 교육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하며 교육에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고 그에 따른 학습 방법지도도 철저히 해야 한다.

코로나 19 감염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루어지는 온라인 비대면 수업 진행은 학생들에게 충분한 자율 학습 방법지도와 그에 따른 충분한 양질의 자료가 제공되어야 한다.

코로나 19위기(危機)를 기회(機會)로 삼아 교육이 비대면 온라인(On-line)수업의 정착으로 혼자 공부하는 자율적 창의력을 길러 실력을 높였으면 한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 222-5547

독자마당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범죄 연결고리 랜덤 채팅앱 인증강화 시급하다

최근 젊은층에서 익명으로 불특정 다수와 대화 및 쪽지를 주고 받을 수 있고 스마트폰을 통해 손쉽게 설치할 수 있어 인기를 얻고 있는 어플이다.

얼마전 대한민국을 충격의 도가니에 몰아넣었던 일명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모 지역 연세 살인사건을 기억할 것이다. 당시 가해자들은 피해자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주요 범죄 경로로 랜챗을 활용했다는 것도 언론을 통해 보도된바 있다.

이처럼 상당수 랜덤 채팅어플이 실명 인증 등 가입절차 허술한데다 익명성을 악용해 범죄 대상을 물색하는 도구로 악용되면서 범죄 온상으로 전

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어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랜챗 설치 시 가입자의 성별과 거주지역, 나이 정도만 입력하면 가입이 가능한데 임의적으로 허위 신상정보를 입력해도 특별한 제약을 받지 않는다. 자신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과 즉석 만남을 갖을 수 있는 GPS 시스템 활용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일단 문제의 발단이 된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적으로 총 1만 1,400여명의 랜챗을 통한 성매매 사범이 검거되었다고 한다. 실제 모 지역에

서 랜챗을 통해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착취물을 요구한 20대가 경찰에 검거된바도 있다. 다른 참고 지표도 있는지 더 살펴보자.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랜덤채팅앱은 약 340여개로 이중에서 본인 인증이 필요한 앱은 약13%에 불과한 46개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통계적으로 본다면 약13%를 제외한 나머지 랜챗은 본인 인증 절차가 생략된 특별한 제약이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이뿐만 아니라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범죄자들이 랜챗을 통해 여성을 가장하여 남성을 상대로 채팅을 유도한후 음란

행위를 녹화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몸캠피싱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 추세이다.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익명성을 보장받은 상태에서 자유로이 상대방과 솔직한 대화를 나누며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부정할 수 없지만 랜챗의 특성상 허술한 가입절차와 더불어 신분을 속이고 불특정 다수와 만남을 갖을 수 있고 익명성 아래 성매매 알선 및 불법행위 연결고리로 전락할 위험이 많은 랜덤 채팅 어플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높을 실정에서 어플 유통사 등 관련 업계의 본인 인증 강화 및 주위적 점검 등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김덕형/장성경찰서 정보안보외사과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이주여성긴급전화 1577-1366	▲기상예보 131
▲응급질병상담 1399	▲법률구조상담 132
▲미아·가출인신고 182	▲인광알코올상담센터 222-5666
▲여성긴급전화 1366	▲광주남성의전화 673-9001
▲청소년상담지원센터 1388	▲광주 여성의전화 363-7739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수도고장신고 121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전기고장신고 123
▲응급의료센터 1399	▲가스사고신고 383-0019

**호남신문** www.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회장·발행인·편집인 김 평 호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 선 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정평 13길 19 (061) 727-3123

서울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애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